

나주시, 설 연휴 대대적 도로정비 나서

총 596개 노선 642.4km 포트홀 보수·사고예방 도로조사원·보수원 '이원화' 작업 능률 향상시켜

나주시가 설 연휴를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겨울철 잦은 제설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트홀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1월 말부터 관내 전 도로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노면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작업 구간은 총 596개 노선, 총 길이 642.4km로 이 중 명절 연휴 전까지 통행량이 많은 국지도·지방도 11개 주요 노선(L=170.7km)을 우선해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농어촌도로 65개 노선(L=270.5km), 마을진입로 520개 노선(L=201.2km)과 시민 통행불편 구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관리팀을 도로조사원, 보수원으로 이원화시켜 작업 능률 향상을 꾀하는 한편 읍·면·동 기관 사회단체 회원들과 합동으로 마을진입도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로 예년처럼 고향 방문이 어려워졌지만 연휴 기간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안전점검과 신속한 포트홀 공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설 선물 장성 아열대 과일 어때요”

레드향·한라봉 출시... 남면 로컬푸드직매장·공판장서 판매

맛으로 정평 난 장성군 아열대 과일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과일의 고장’으로 불린다. 축령산, 백암산 등 청정 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을 지닌 평야가 조화를 이뤄 과일 맛이 특출나다. 또 전남의 관문이자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통 및 소비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장성군은 레드향과 한라봉 출시를 알렸다. 감귤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 만든 레드향과 한라봉은 장성을 대표하는 아열대 작목 가운데 하나다. 당도가 높고 신맛과 단맛이 균형을 이뤄 인기가 높다. 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비타민C와 혈액순환에 좋은 비타민P가 풍부해 겨울철 건강 유지에도 좋다.

볼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만 생산됐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지가 북상 중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7년부터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특색 있는 아열대과일 재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레드향과 한라봉 외에도 천혜향, 구아바, 패션프루트(백향과) 등의 재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총 재배 규모는 23농가 8ha에 이른다.

작년에는 농촌진흥청의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에도 성공해, 대한민국 농업의 변화를 주도할 전초기지도 각광받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아열대과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재배기술 전수, 농가 컨설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출시를 시작한 장성 레드향과 한라봉은 현재, 남면 로컬푸드직매장 또는 공판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창평보건지소, 건강증진형 지소로 '새 단장'

건강관리교실·치매 쉽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5일부터 본격 운영



담양군 창평면 보건지소가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군에 따르면 창평보건지소는

2012년 준공 이후 '2020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건물 개보수 및 다목적실 등 증축과 함께 의료장비를 보강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규모가 확장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환자진료,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 보건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기본사업을 확대하고 건강관리교실, 치매 쉽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코로나 19로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밀착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 추진

고용창출·경제 활성화 일석이조

구례군은 고용 확대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근로자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월 중 선발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청년근로자는 디지털·그린 뉴딜,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6대 분야 기업 등에서 우리 지역의 블루지원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 분야를 접목하는 일자리 체험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정보 DB 구축, 에너지관리 시스템 분야 실무, 지역상권 빅데이터 자원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블루잡 청년 뉴딜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재)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수처(www.ictwork.net)에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전남도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토양개량제 13만 9천포 공동 살포

운영위 개최...포당 800원 지원

곡성군은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를 위해 공동살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일 곡성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농업협담자, 면사무소 담당자, 이장 등 15명이 참석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곡성군은 규산질, 석회질, 폐화석 전체 공급량에 대해 공동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은 농경지의 유효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해 3년에 1번씩 토양개량

제를 공급해오고 있다. 올해 대상지역은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으로 총 9,844필지(총 면적 1,542ha)에 139,821포가 살포될 계획이다. 살포는 지역농협에서 이달까지 살포 대행자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살포 대행자에게는 포당 800원(포/20kg)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공동살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가 해결되고, 적지적소 살포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농업인 e-비즈니스 양성 교육 신청하세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가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화순군이 농업인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월 개설한다. 화순군은 'e-비즈니스 리더 양성 교육'을 운영해 농업인의 농산물 홍보, 판매, 마케팅 역량을 키운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

면 소비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지역 농업인이 자체 유통망을 개척,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 ▲유튜브 활용법, 동영상 촬영과 편집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화순=박순철기자**

수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화순군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이메일(greendaeun@korea.kr)로 발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10차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의 70% 이상 출석하고 영상을 제출하면 수료 자격이 부여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